

# 옷칠 기법을 이용한 티 테이블 개발에 관한 연구<sup>1</sup>

김상권<sup>2</sup>

## A Study of Tea Table Development Employing Traditional Varnishing with Lacquer<sup>1</sup>

Sang-Kwon, Kim<sup>2</sup>

### ABSTRACT

Furniture is a medium to interconnect the living space to human, and it is the closest environmental element that limits the functions of the space, defines the style of the living, and adjusts the actions and behaviors of human. Therefore the furniture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craft arts that reflects the culture and living style as they are according to the periodical, regional, and social stratum characteristics.

Within this context, this study tries to suggest new design and living culture that can harmonize with the modern residence living culture and incorporate the traditional varnishing technique with lacquer that had been discontinued. Coming to the modern days, the varnishing with lacquer is getting attention again with its environment friendly characteristics and antibiotic functions, and is being applied to various applications. To inherit and maintain such an excellent traditional culture, I would like to improve the practicality by applying to modern furniture, and to contribute to develop and tell the world about the superiority of our culture.

**Keywords:** tea table, traditional lacquer, living room, design process.

## 1. 서론

### 1-1 연구 목적

우리의 전통문화는 8.15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서구문물의 영향

---

1. 논문접수: 2009. 9. 01.; 심사: 2009. 09. 11.; 투고확정: 2010. 01. 16.

2. 계원디자인예술대학 Furniture Design Division,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Euiwang-shi, Kyunggi-do, Korea, 437-712. E-mail: skkim@kaywon.ac.kr.

으로 전통문화와 생활방식이 쇠퇴하고 서구문화와 생활방식이 도입되면서 의식주 전반에 걸쳐 큰 변모를 하게 되었다. 서구화의 물결은 주거양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통적인 좌식 가구에서 탈피하여 입식 위주의 가구로 변모하게 되었다. 가구에 있어서 입식가구의 변화는 형태, 크기 제작방법, 재료 등이 우리의 전통가구와는 다른 서구식 가구 변화를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전통 가구와 문화의 단절을 가져왔다. 우리의 옛 전통가구는 오랜 세월 한국의 자연환경과 생활공간, 생활양식, 생활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된 것으로 토착성이 강한 한국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구의 특성은 실용품으로써 쓰임새에 따라 기능상 간편함, 편리함, 튼튼함을 중요시하고 가구의 구조적 결합을 견고히 했으며 구조와 기능에서 오는 간결함과 면분활의 쾌적성, 목재의 나뭇결을 자연스럽게 처리하여 보편성 있는 비례미와 자연미가 생활공간과 양식이 변화된 현대에 와서도 시공을 초월하여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산업화에 따른 가구생산에는 인공적인 재료와 합성수지 도료로 인하여 환경과 피와 주거환경에 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 친화적인 도료적 우수성과 독특하고 다양한 마감표현이 가능한 옷칠의 장점을 살려 현대의 공간 특성에 맞게 디자인 개발을 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여 진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 재료인 옷칠과 삼베, 한지를 티 테이블에 접목하여 환경 친화적 요소를 극대화하면서 옷칠 가구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화, 대중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옷칠을 현대의 주거공간에 알맞은 가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옷칠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적 고찰이 필수적이나 국내외적으로 체계화된 연구 논문이나 문헌이 적고 단지 목공예의 한 부분으로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진 정도이다. 따라서 옷칠을 현대가구에 접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참고문헌이나 자료를 통하여 옷칠의 정의, 역사 등을 고찰한다.

둘째, 전통 옷칠 기법의 종류와 현대가구에 접목할 기법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옷칠의 장점과 문제점, 옷칠기법의 적용, 현대적 적용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넷째, 현대 가구 중에서 거실용 티 테이블에 옷칠 기법을 접목하기 위하여 티 테이블의 형태, 기능 등을 고찰한다.

다섯째, 티 테이블의 아이디어 스케치와 렌더링, 옷칠 접목 과정을 고찰한다.

특히 우리의 전통재료인 삼베와 한지를 옷칠에 접목하여 친환경적,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하여 기존의 전통 옷칠가구의 한계를 넘어 창의적인 표현 기법으로서 가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 2. 옷칠

### 2-1 옷칠의 정의

옷나무는 중앙아시아 고원지대가 원산지로서 온대에서 열대지역에 걸쳐 분포하며 60속 600여 종에 달한다. 옷나무의 잎은 5월 초순경부터 나기 시작하여 15일 정도 경과하면 완전한 잎의 모

습이 된다. 잎의 형태는 여러 개의 쌍장복엽으로 9~11개의 난형 또는 원상난형이다. 옷나무에서는 유백색 액체의 수지를 얻을 수 있는데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면서 우루시올과 락카제의 자체 중화과정을 거쳐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공기 중의 산소와 접촉하면 견고하게 굳어지면서 도막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도막은 산에도 부식되지 않고 내열성과 내염성, 방수, 방부, 방충, 절연 효과가 뛰어나다.(손 2006)

옷이 방수성이 있고 고착성이 높다는 것은 인류가 수지를 접했을 때 옷이 오른 체험을 가진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옷나무에서 채취된 수액을 이용한 옷칠공예는 동양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전하여 왔다. 옷은 건조가 되면 접착력이 강하고 방부성, 내열성이 높아 어떠한 약품도 침투되지 않는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옷 특유의 광택과 깊고 따뜻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옷에 비교될 만한 도료를 찾기 어렵다.(권 1997)

## 2-2 옷칠 가구의 역사

### 2-2-1 삼국시대

한반도 내에서 발견되는 옷칠의 자취는 낙랑 칠기보다 훨씬 소급되어 적어도 청동기시대 말기 유적으로부터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1960년대에 발굴된 황해도 서흥 천곡리 석관묘에서 작은 옷칠 조각이 발견된 바 있으며 1976년에 국립박물관이 수습 조사한 충청남도 아산 남성리 석관묘에서도 옷칠했던 박편들이 발견되었다.(이 1994)

고구려는 한나라 및 낙랑과 가장 근거리에 있었지만 칠기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유존하는 어떤 확증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 옷칠의 단편을 확인해 주는 예는 평남 대동군 호남리 사신총에서의 발견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주 작은 몇 개의 칠편들이 어떤 것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 고분은 삼국 시대말기의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가 금곡식금구, 철모 등과 더불어 수습되긴 했어도 그것들을 일관해 칠기의 발달을 살피기에는 역시 미흡한 자료이다. 7세기 육조의 영향이 미술에 반영되어 활기를 띠면서 고구려적인 특징을 이룩한다. 칠관의 흔적은 강서고분과 집안고분에서 발견되고 건칠관의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일반 용기로서 수습된 예는 없다.

백제의 칠기자료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보잘 것 없었는데 1971년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됨으로써 매우 요긴한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BC 525년이라는 절대 연대가 기재되어 있는 이 왕릉에서는 이제까지 삼국시대 고분 가운데 목제품을 가장 온전하게 많이 수습하였다. 유존하는 목제품들은 모두 옷칠이 되어 있는 까닭에 완전히 부식되어 있는 것을 면하였고 또한 칠공예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들을 제시해 준 것이다. 판재에다 옷칠을 두껍게 한 칠관을 비롯하여



Fig. 1. A Leg Supporter Coated with Lacquer.



Fig. 2. A Stackable Bowl for Side Dishes Coated with Lacquer.



Fig. 3. A Soup Bowl Coated with Lacquer.

두침과 족좌 및 패식과 장도, 칼집 등 다른 고분 부장품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 품목들이며 이 중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목칠 공예품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관 속에 넣어 시신을 안치했던 두침과 족좌이다.(권 1997)

신라는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적석총인 고분구조로 인해 삼국 중에서 두드러지게 칠공예가 많이 발견된다. 고분에서는 기원 전후부터 옷칠의 공예품이 나오지만, 5세기 무렵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본다. 경주 고분의 칠기들은 목제품이 대부분인 목심칠기이다. 일부 피죽으로 짠 남태칠기나 삼베를 겹겹이 발라 만든 건칠기도 보이고 있다.(손 2006)

황오리 제 15호 고분에서는 목관이 놓였던 위치쯤의 점토상 위에 금박을 올린 목관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일종의 칠 도금이며 호간층의 목관 내면에도 옷칠을 하고 그 위에 붉은 도료를 칠하였다. 천마총의 보고서에 의하면 흑칠목관에다 단색으로 도장한 뒤 금박을 전면에 입혔다고 하는데 칠관은 흔히 있는 것이지만 주칠 내지 단채의 흔적은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아직 발견되고 있지 않다.(권 1997)

### 2-2-2 고려시대

고려시대의 옷칠은 칠공예사상 가장 뛰어난 경지에 올랐으며 고려도경에 의하면 그릇에 옷칠하는 일은 그리 잘하지 못하지만 나전 일은 세밀하고 귀하다고 할 만하다.(서 2005) 일반 칠기보다는 나전칠기에서 특히 우수한 성과를 얻었는데, 이는 농익은 불교문화의 수준과 수요의 보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나전칠기는 중국에서 당·송 대에 성행하다가 남송 이후 쇠퇴하였고, 통일신라에 전해져 고려에서 전성기를 이루었다. 10세기 말 성종 때와 11세기 후반 문종 때에는 모든 제도가 완비되어 생산의욕이 증대되고 기술도 월등히 향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는 훌륭한 기술자들에 대한 지위도 높았다. 이러한 여건에서 나전칠기는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몽고 침입 이후 고려의 국운이 쇠하자 공예품의 제작도 쇠퇴하고 기술자들의 지위도 후퇴하였다.(손 2006)

나전칠기는 10세기 경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여 12~13세기까지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그 후에는 차츰 쇠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 나전칠기의 특징은 얇고 빛 고운 자개를 쓴 점과 대모의 박판 안쪽 면에 채색을 칠하여 붙이는 복채법인데 이것도 당대 나전에서 약간 보이는 것이지만 고려 나전에서 한층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권 1997)



Fig. 4. A Storage Chest Coated with Lacquer.



Fig. 5. A Prayer Bead Box Coated with Lacquer.

### 2-2-3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는 옷칠과 나전칠기 일이 훨씬 대중화되었을 터인데도 옷나무의 재배가 국가적으로 권장되는 한편 그것이 지방 관청의 엄격한 감시 속에서 보호되는 것이었다. 옷칠의 민간 사용은 은연 중 제재를 받는 처지였겠으나 왕조의 쇠퇴와 더불어 칠전의 관리가 소홀해졌음은 물론 사사로이 채취하고 도벌함으로써 좋은 옷이 귀해지고 칠공예의 질적 저하를 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이 1986)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경영되었던 조선시대에는 고려에 비해 공예품의 제작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 당시 지배층의 성리학적 명분주의는 사농공상의 계급적 질서를 더욱 고착시키고, 기술과 관련된 공상인의 직업을 폄하함으로써 기술의 발달이 도외시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성리학에는 고려시대의 조형적 성장 동력이었던 불교와 같은 장엄의 조형의식이 상대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공예기술의 쇠락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 사회로 생활용품에 있어서도 계층마다 차이를 두었다. 철저한 지배질서의 이념을 따르던 수공예품 제작 시스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겪고 나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통제력이 느슨해지자 국가에 예속된 기술자들은 점차 줄어들었다. 관속에서 벗어난 기술자들은 독자적인 생산 활동을 하거나 상업 자본에 새롭게 예속되기도 하였다.(손 2006)



Fig. 6. A Box Decorated with Mother of Pearl and Coated with Lacquer.



Fig. 7. A Box Decorated with Mother of Pearl and Coated with Lacquer.

## 3. 옷칠 기법

### 3-1 일반적 기법

#### 3-1-1 칠 올리기 기법

칠 올리기 기법은 옷칠의 기본적 기법으로서 목기나 제기에 많이 사용되며 아름다운 무늬 결을 살리고 옷칠의 깊은 맛과 멋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칠 올리기 기법의 공정으로는 소지의 백골을 사포로 연마하고 초칠, 중칠, 상칠, 광내기를 통하여 8~10회 함으로써 깊은 도막을 얻을 수 있으나 복잡한 공정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대의 가구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칠 올리기 기법은 가구에 적용하기 보다는 작은 목기나 소품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현대 가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문짝이나 서랍 등에 일부 적용하여 옷칠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Fig. 8. Basic Lacquering Procedure.

### 3-1-2 점칠 기법

점칠 기법은 생칠을 적정량의 희석제와 배합하여 귀얄(붓)이나 고운 면으로 만들어진 천을 사용하여 기물 전체에 바른 후 다시 생칠이 묻어 있지 않은 천을 이용하여 닦아 내서 최대한 칠의 두께를 얇게 하여 나무 무늬가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기법이다. 닦아내기 할 때는 천을 적당한 크기의 세 조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 조각은 왼쪽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기물을 감싸듯이 잡고 다른 조각으로는 묻혀진 칠을 1차로 닦아 낸다. 점칠 하기에서 주의할 점은 천에 묻어 있는 생칠이 기물에 옮겨 묻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며 양손에 잡고 쓰는 천은 자주 확인하여 칠이 많이 묻어 있으면 새것으로 갈아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을 2~4회 반복하는데 매회 건조된 상태를 확인해 봐서 천에서 나온 이물질이나 미세한 먼지 등이 묻어 있으면 1,000~2,000번 종이 사포를 사용하여 매끄럽게 갈아낸 후 먼지를 털어낸 다음 점칠을 한다. 계속 5~10여 회를 반복하여 마무리하면 나무의 표면은 얇게 칠이 올라 자연 그대로의 나무 무늬를 느끼게 되며 은은하고 아름다운 연한 적갈색으로 완성된다.(손 2006)

또한 점칠 기법에 찻쌀풀과 옷을 배합하여 소지에 삼베나 천 등을 접착한 후 닦아내면 다양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많은 시간과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치 않아 현대 가구의 몸통, 문짝, 서랍 등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Fig. 9. Lacquer Dabbing-and-Spreading Application Procedure.

### 3-2 장식기법

옷칠은 도장을 하여 건조되기 전 기물에 여러 기법을 이용하여 장식할 수 있다. 장식기법에는 옷의 접착성을 이용하여 자개, 알 껍질, 금속, 난각, 평탈, 안료와 옷을 혼합하여 채칠을 만들어 문양을 묘사하는 칠화, 회칠로 문양을 그려서 건조되기 전에 금, 은분을 뿌리는 시회, 칠 표면을 조각도로 문양을 조각하여 금속분 혹은 박을 넣은 침금 등이 있다.(권 1997)

장식기법은 옷칠 기법 중 가장 많은 시간 소모와 까다로운 공정, 정성이 있어야 되므로 현대 가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형 서랍, 문짝에 특수한 효과를 얻고자 할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다.



Fig. 10. Metal-Attaching Procedure and Gold Powder Application Procedure.

## 4. 옷칠 기법의 현대적 적용

### 4-1 옷칠의 장점과 단점

옷칠의 장점으로는 인체에 무해한 천연도료로서 친환경적이며 내구성이 우수하여 오랜 기간 보존이 가능하다. 옷칠 특유의 광택과 은은하고 깊은 멋은 합성수지 도료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어 가구 마감 도장에 적합하다.

옷칠은 다양한 기법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 문짝이나 서랍 등에 적용하면 현대 가구에서 볼 수 없는 기법을 나타낼 수 있고 마감 도장 후 문제점이 발생 시 수정 후 재도장이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자연도료로서 옷나무에서 채취해야 하므로 생산량이 적고 가격이 합성수지 도료에 비해 고가여서 일반적인 가구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합성수지 도료에 비해 도장공정이 까다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도장 공정을 자동화하기 어려워 제품의 생산단가가 높고 대량생산이 불가능하여 대중화하기 어렵다. 옷칠 건조 시 미세먼지가 도장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세먼지를 차단하고 온도, 습도를 유지하는 옷칠용 특수 건조 시설이 필요하고 옷칠 시 작업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다가 옷칠이 묻었을 경우 옷의 독성으로 인해 피부 염증을 일으켜 칠 작업이 어려우므로 도장 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4-2 옷칠 기법의 적용 범위

옷칠은 친환경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대중적인 가구에 적용하기 보다는 현재 유럽에서 수입하는 고가의 수입 가구를 대체할 수 있는 고가의 가구로 개발하여야 한다. 침실가구, 거실가구, 주방가구, 학생용가구 등 모든 가구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물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가구의 몸통, 문짝, 서랍 등에 사용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옷칠 기법의 적용으로는 접칠 기법을 가구의 몸통, 문짝, 서랍 등에 사용하고 칠 올리기 기법과 장식기법은 제한적으로 문짝, 서랍 등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옷칠의 도장횟수도 현대적 공정에 맞도록 표준화하여 생산단가를 줄여야 한다.



Fig. 11. Door and Drawer-Door Coated with Lacquer.

### 4-3 현대적 적용사례

옷칠을 현대가구로 개발하여 제품화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아직까지도 장인들이 전통가구나 용기, 제기예 옷칠을 하여 소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소수의 가구디자이너들이 가구에 옷칠을 적용하여 개발한 사례가 있으나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다.



Fig. 12. A Console Table Coated with Lacquer.  
(Hoon-Sang Cho 2005)



Fig. 13. A Tea Table Coated with Lacquer.  
(Hoon-Sang Cho 2005)

## 5. 티 테이블(Tea Table)

### 5-1 티 테이블의 기능 및 역할

테이블은 과거 좌식생활이 발달했던 한국에서는 소반, 서안, 경상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주방과 식사공간이 분리된 한옥구조에서는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알맞은 크기의 소반이 제작되었다. 근대생활로 넘어오면서 서양주거문화의 영향을 받은 테이블은 의자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좌식생활과 입식생활방식이 어우러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테이블의 기능성과 더불어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이 증대되면서 그 재료와 디자인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여 2008)

### 5-2 티 테이블의 디자인적 특성 및 경향

테이블의 형태에 있어서도 직사각형, 정사각형, 원형 등 다양한데 이는 소파의 형태와 배치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직사각형 테이블이 많이 사용되지만 1인용이나 3인용 사용했을 경우 이상적이며 코너소파나 1,1,3용은 사각형이나 원형 테이블이 적당하다.(강 2000)

티 테이블 디자인의 전반적인 흐름은 미니멀리즘과 오리엔탈리즘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형태는 간결하면서 기능성이 다양해진 가구는 공간 활용도를 고려하고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멀티기능, 유연성, 가변성은 더욱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세계적인 전시회에서는 동양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가구들이 많이 선보여졌다.





Fig. 14. A Tea Table/Book Rack.



Fig. 15. A Polygonic Tea Table.



Fig. 16. A Swivel Tea Table.

## 6. 티 테이블 디자인 개발

### 6-1 디자인 방향

티 테이블의 디자인 방향은 소비자층을 50평형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가격은 고가이며 모던 클래식 스타일로 디자인하고자 한다. 티 테이블의 형태는 이조 목가구의 소박하면서도 심플한 비례미와 자연미를 현대가구에 알맞게 미니멀한 직사각형이나 사각형 형태로 하고 공간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가변성을 준다. 거실의 기능에 맞게 손님접대, 가족의 대화, 여가, 오락 등에 필요한 차 도구, 잡지, 소품 등을 수납하는 함을 디자인에 반영하고, 함의 뚜껑은 차, 다과, 간단한 음식을 나를 수 있도록 보조적 소반의 역할을 하게 하여 기능적이고 편리하도록 한다. 또한 친환경적인 삼베와 한지를 가공소재와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재료를 사용한다.

### 6-2 디자인 전개 및 확정

디자인 전개는 전통적 조형미를 현대화하여 상부함과 하부 테이블을 분리 디자인 하여 가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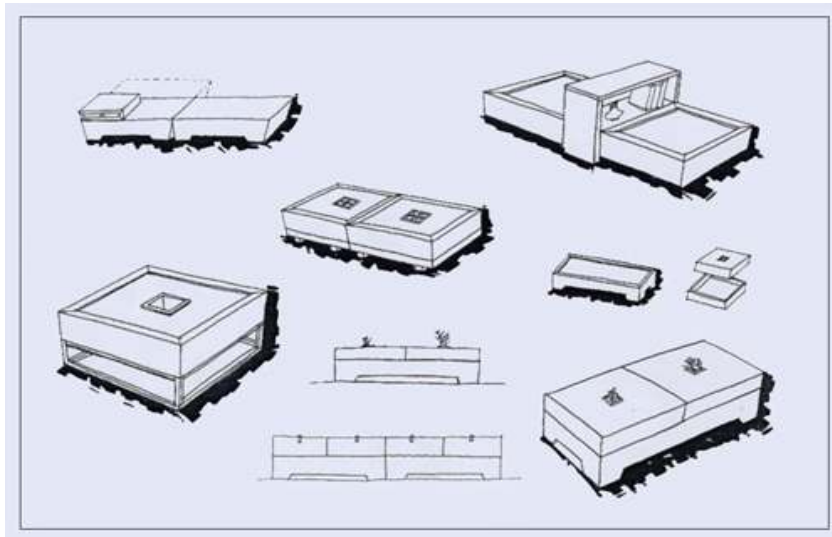


Fig. 17. Idea Sketches.

성을 주었다. 상부 수납함에는 필요한 소품들을 좌우함에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함의 천판에는 꽃(조화)이나 필기구를 꽂을 수 있는 사각통을 디자인하여 편리성을 주었다.

### 6-3 디자인 도면

기본 도면으로 형태, 치수, 세부 디테일, 소재 등이 표기되어 제작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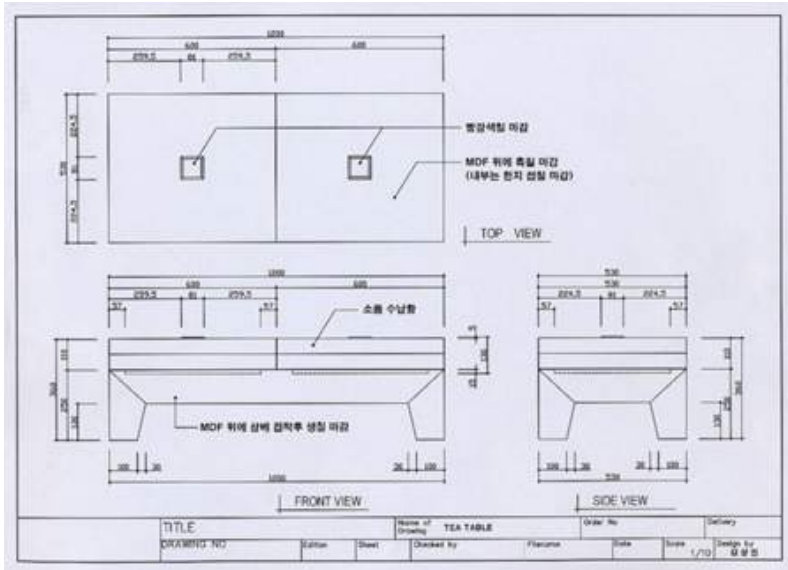


Fig. 18. A CAD Drawing for a Tea Table.

### 6-4 3D 렌더링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기 전 최종 디자인을 실물에 가깝게 형태, 색상, 재질, 사이즈 등을 컴퓨터



Fig. 19. A Rendering of a Tea Table.

티 렌더링을 통하여 시물레이션 하여 문제점이나 수정 사항을 파악하여 재검토 디자인에 반영한다.

## 6-5 제작과정

### 6-5-1 하부테이블 제작과정

초칠은 먼저 사포 200번으로 테이블을 샌딩한 후 먼지를 털어내고 생칠(50%)과 테레핀(50%)을 묽게 섞고 칠을 한 후 건조시키고 참쌀풀(70%)과 생칠(30%)을 잘 섞는다. 혼합된 풀을 테이블에 바르고 삼베를 부착한 후 플라스틱 주걱으로 삼베를 누르면서 잘 부착될 수 있도록 고르게 풀을 바른다. 테이블에 삼베가 잘 부착 되었는지 확인 후 건조 시킨다. 건조가 끝나면 삼베의 부착정도를 세밀하게 확인한 후 떨어진 부분이 있으면 순간접착제나 본드로 재 부착한다. 칼이나 가위로 부착된 여분의 삼베를 깨끗하게 잘라내고 사포 200번으로 모서리 부분을 샌딩하여 정리한다. 생칠(100%)을 삼베에 잘 거른 후 1회 붓으로 칠을 하고 천으로 짚어서 닦아낸다.

중칠은 초칠을 한 후 건조가 끝나면 사포 200번으로 삼베의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을 샌딩하고 먼지를 닦아낸다. 붓으로 생칠을 골고루 도포하고 천으로 짚어서 닦아낸 다음 같은 방법으로 2회 칠을 하고 건조시킨다. 상칠은 중도가 끝나면 원하는 칼라와 표면 질감을 얻을 수 있도록 1회~2회 정도 칠을 한 후 천으로 닦아낸 다음 건조시키고 마감을 한다. 원하는 색상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다른 색상과 혼합하여 1회~2회 추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칠을 하여 완성한다.





Fig. 20. Procedure for Making the Lower Portion of the Tea Table.

### 6-5-2 상부함 제작과정

초칠은 제작된 상부함을 사포 200번으로 소지를 샌딩하여 면을 평활하게 만든다. 생칠(60%)을 테레핀(40%)과 섞어서 한지를 부착할 함의 내부 바닥면을 제외하고 내 외부에 붓으로 칠하고 붓 자국이 퍼질 때까지 기다린 후 건조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건조장은 온도(18~25℃)와 습도(60~80%)를 잘 맞추어야 건조가 잘 된다. 건조가 끝나면 함의 내부 바닥면을 삼베를 부착한 같은 방법으로 찹쌀풀을 생칠과 섞어 한지를 부착한 후 건조가 끝나면 가위나 칼로 깨끗이 잘라낸다. 중칠은 초칠이 끝난 후 먼저 400번 사포로 물 사포를 하여 면을 조정한다. 물 사포 시 너무 강하게 샌딩을 하게 되면 칠이 많이 벗겨져 소지가 드러나게 되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샌

덩이 끝나면 칠할 면을 깨끗이 닦아낸 후 흑칠 유광 정제칠(60%)과 테레핀(40%)을 잘 섞어 한지를 붙인 내부 바닥면과 빨간색 칠을 할 사각통을 제외하고 1회 칠을 한다. 붓 자국이 퍼질 때까지 기다린 후 건조장에 넣어 건조시킨다. 건조가 끝나면 사포 600번으로 물 사포를 하여 면을 조정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칠을 하여 다시 건조시킨다.

상칠은 2회 칠을 하여 건조가 끝난 면을 사포 800번으로 물 사포를 하여 면을 조정하고 칠할 면을 깨끗이 닦아낸 후 흑칠 유광 정제칠(60%)과 테레핀(40%) 섞은 칠로 1회 칠을 한다. 건조가 끝나면 사포 1000번으로 물 사포를 하여 면을 조정하고 마지막 상칠을 한다. 상칠이 끝나면 건조가 끝난 소지를 사포 2000번으로 물 사포를 하고 킴파운드로 광을 내고 완성을 한다.

한지를 붙인 바닥면은 사포 200번으로 거친 부분을 조정한 후 테레핀을 섞지 않은 흑칠을 거른 후에 칠을 하여 천으로 닦아낸 후 건조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3회 정도 반복하여 완성한다. 빨간색 칠을 할 사각통도 흑칠 유광과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색상의 선명도가 나올 때까지 물 사포, 칠, 건조과정을 3회~4회 반복하여 완성한다.





Fig. 21. Procedure for Making the Top Box Portions of the Tea Table.

## 6-6 프로토타입(Prototype)

전통 옷칠기법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하부테이블은 MDF위에 삼베를 붙여 접착을 하여 삼베 특유의 거친 질감을 살렸다. 상부 좌우함은 흑색 유광 정제칠을 사용하여 마감하였으며 사각통은 빨간색 칠을 하여 액센트를 주었다. 또한 상부함은 이동이 가능하게 하여 좌우로 이 단으로 쌓거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다. 함의 내부는 특수 한지를 접착하고 생칠로 접칠 마감하여 한지 특유의 질감을 살리고 물품이 내부에 부딪혀도 흠이 나지 않도록 배려했다.



Fig. 22. A Completed Tea Table.

## 7. 결 론

옷칠 가구는 까다로운 제작과정 및 높은 제조원가와 함께 저가의 합성수지 도료를 사용한 가구의 대량 보급으로 인해 오늘날에는 퇴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이 부각되면서 옷칠은 친환경적인 도료로서 그 가치를 주목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옷칠을 이용하여 현대 거실공간에 어울리도록 개발함으로써 옷칠 가구의 현대화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티 테이블이라는 기능적 요소에 가변성을 적용하여 기존 테이블에서 보이던 수동적 특성을 보완하였으며, 분리에 따른 기능성과 변화있는 연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대인의 창의적, 유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옷칠기법을 이용하여 현대적 가구로 적용하고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와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옷칠을 현대적으로 활성화하여 우리의 전통기법과 조형미를 재조명하고 한국적 가구디자인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둘째, 옷칠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생활에 알맞은 제품개발에 힘써야 한다.

셋째, 전통화된 옷칠 기법을 현대가구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거쳐 발전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옷칠의 도장공정의 표준화, 도장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통하여 원가절감 및 제품의 품질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국내 가구업체에서도 옷칠을 현대화한 디자인을 적극 개발하여 제품을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입 가구를 대체하고 수출을 신장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티 테이블에 옷칠기법을 사용하여 현대적 공간에 알맞은 디자인으로 표현해 봤으며 옷칠이 현대가구에 적용될 수 있는 능동적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는 옷칠이 전통가구에만 적용된 것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에도 맞고 한국적 가구디자인의 정체성을 되찾으며 시대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의적 요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8. 참고문헌

- 강신우. 2000. 현대가구디자인. 미진사: 41-42.  
권상오. 1997. 칠공예. 조형사: 17. 24. 25. 29. 165.  
모든정보테크. 2004. 월간가구저널: 162.  
서금. 2005. 고려도경. 서해문집: 181.  
손대현. 2006. 전통옷칠공예. 한국문화재보호재단: 10. 11. 14. 50.  
여정은. 2008. 가변형 옷칠 테이블 개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이종석. 1994. 한국의 목공예. 열화당: 18. 227.  
이종석. 1981. 한국의미-목칠공예. 중앙일보 계간미술 : 4. 5. 21. 28. 46. 47. 51. 53. 58. 61. 63.  
조훈상. 2005. 낙동법을 활용한 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2.  
Desire-The Shape of Things to Come, 2008, Gestalten : 34.  
Jican lu, 2007, 07 Salone Internazionale Del Mobile Di Milano: 183.